

임원 후보 출마의 변(辯)

□ 출사표(출마의 변)

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이사장에 임후보한 한 정 미 입니다.

여기 저기서 봄 기운이 느껴지는, 그야말로 꽃피는 3월이 되었습니다.

이제 곧 푸르른 초목들도 각기 제 모습을 보기 좋게 드러내겠지요.

때가되면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또 결실하는 자연을 통해서
배울것이 있다면,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구나... 하는 것입니다.

그동안 크고 작은 저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사느라

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돌아 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

그래서 이제,

그동안 저의 인생에 있어서 용마리가 되어 주었던 우리 형제를 위하여
머뭇머뭇한 힘이나마 보태어 봉사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너무 이르지도, 혹은 너무 늦지도 않은 이 좋은 때에, 우리 KIPGA가
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며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로 노력하고 있다고
생각합니다.그렇게 마음모아 애써는 선·후배·동기들의 그늘아래 노고를 막기에
저 또한 저의 모든 열정을 쏟음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.

부족한 것은 배우서 채워가며 창의적으로 일 하겠습니다.

회원들의 간절한 바람이 지체없이 실현되도록 호신의 힘을 다 할 것이며,
회원들의 입장에 서서 일 할것을 약속합니다!

2016년 03월 // 일

작 성 자 :

한정미

